



세계 최고 신비의 섬 울릉도를 잇는 오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단체장 일정
 류규하 대구구청장은 22일 오후 신명고에서 열리는 '신명고 그린스마트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에 참석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22일 오전 대구군부대 영천 유치계몽운동에 이어 오후 시청실에서 영일 정씨 추모 목판을 기탁받는다.

상주 지중화 사업 완료... 주민 숙원사업 풀었다

상주 무양·낙양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마무리 다가가

상주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무양·낙양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무양동과 낙양지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무양동 상주변전소부터 남산근린

공원을 거쳐 신봉동 병성천 구간까지 총 3.9km 구간에 세워져 있던 15만 4000볼트 철타 20기를 올해 안으로 모두 철거, 12월까지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한다.

사업 구간은 시내 지역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송전탑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중화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 인근을 통과, 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민원은 물론 오랫동안 근린공원 내 철타 철거로 시민들의 삶의 질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중화사업의 막대한 공사비로 미뤄졌다. 하지만 2017년 5월 상주시와 한전 경북 본부가 지중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 50%씩 공동부담하고 상호협약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정비 뿐 아니라 상주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남산 근린공원 내 철타 철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철타 인근에 위치한 상주고 학생들의 면학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선정된 남양동성동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의 중심상가거리환경 개선사업으로 계획된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완료 이후에는 보행환경이 개선,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호 기자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 우리는 하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0일 열린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아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일 의성군에 있는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일반직 공무원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2000년 경주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회에는 임종식 교육감, 이만승 노조위원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김중철 학부모회장연합회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까지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는데 대해 감사드린다.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화합하며 맘껏 즐기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사진=경북교육청 제공)

대한민국 1호 농촌돌봄 마을 청사진 나왔다

대한민국 1호 농촌 돌봄마을 사업이 성주군에서 진행된다.

경북도는 21일 성주군에 조성될 '농촌 돌봄 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승인돼 올해 착공된다고 밝혔다.

성주군 농촌 돌봄마을은 성주읍 금산리 3만6912㎡ 터에 사회적 약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시설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농업시설 등 전체 면적 2958㎡ 규모의 건축물 건립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은 △건강지원실, 교육실, 스마트가든, 커뮤니티센터, 농업교육작업장 등을 갖춘 케어팜복합센터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한옥형 교육공간인 에듀동 △자체 생산된 농산물 판매 공간인 로컬푸드판매점 △사회적 약자 단기 거주시설인 유니트케어하우스 등이 건립된다.

외부공간에는 스마트 운동 하우스, 노지 텃밭, 정원, 운동장 등이 조성된다.

이 마을이 단순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사회적 약자가 농촌 주민과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해 주민의 자립을 지원한다. 도세훈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 마지막 결정... 바로 경주다

주낙영, 경주의 진취성 'APEC' 회원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변영 도모 문화적 격차 극복하며 상호 결속...중요한역할 할 수 있다 기대 넘쳐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면 APEC의 가치와도 바로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화백제도로 대표되는 과거 신라의 민주적 합의제도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APEC의 전원합의 의사결정방식과 동일하다.

비구속적 이행을 통한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경주는 한반도 역사에서 국제무역의 시작점인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끝점으로 서신라시대부터 국제사회에 열려 있었다.

다양한 대외 문화를 받아들이고 융화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온 역사는 태평양 연안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APEC의 개방성과 맥을 같이 한다.

APEC이 지향하는 '2040 비전'의 핵심가

치이기도한 포용성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며 번영한 신라의 통일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통일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을 포함한 외국인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포용성을 가진 국가였으며, 이는 유학과 불교, 도교 등 삼교를 모두 수용하는 정신적 유연성과도 연결된다.

신라는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로 뻗어 나갔다.

그 중심에는 항상 경주가 있었다.

현재까지도 경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서 세계 최초 도시간 박람회인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와 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면서 세계적인 교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경주의 진취성은 APEC 회원국과 함께 새로운 경제 변영을 도모, 문화적 격차를

극복하며 상호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신라 천년의 역사를 한 곳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중요한 동력이 바로 진취·개방적이며 다양한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포용성에 있다. 이는 APEC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주시장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유의 문화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경주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 축제인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전통과 문화, 경제가 어우러진 새로운 APEC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용찬 기자

오늘의 지면

청송사과 대한민국 최고 사과 6면
 칠곡군 관광산업 유럽 시장 교두보 마련 8면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2024 예천축제

2024 예천 축제

2024. 5. 3. (금) - 6. (월)

한천체육공원 일원

개막식 축하공연

다이너듀오

강혜연

상포골드 이블

연아라매일리

주요프로그램

예천 동부민간 의전쟁

관공전 '황천전쟁'

황신바이블

후원모집채 공단 사업

익자시어(죽임 체험관)

알기그재원

보은치원

※ 위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즐기면 좋은 예천

Step 1 2024 예천의 봄 '회룡포 봄꽃축제' 2024. 4. 20.(토) - 5. 6.(월) / 회룡포 마을 일원

Step 2 곤충생태원 어린이날 특별이벤트 2024. 5. 4.(토) - 6.(일) / 곤충생태원 일원

주최 예천군 주관 예천문화관광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단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국민행복위원회 대한국도의회



DGB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확대

DGB대구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및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에 발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대상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중소기업입력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를 제출하면 익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이 적용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수수료 5억원 이하 구간을 포함,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조미경 기자

홍준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우리에게 지옥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 박근혜 전 대통령엔 징역 30년구형 더 이상 우리 당 얼씬거리면 안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연일 독소를 날리고 있다. 홍 시장은 21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동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보수층은 탄핵을 반대한 홍준표는 홀대하고 그런 한동훈을 지지하고 밀어주려 하는냐는 물음에 “그게 한국 보수층 수준이다”고 불편해했다. 이는 한국 보수와 국민의힘이 살아나려면 “남비 체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배알 없는 짓으로 보수우파가 망했다”는 홍 시장 비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쉽게 달았다가 식어버리고 과거를 잊어버리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을 향한 공격은 지난 20일에도 계속됐다. 홍 시장은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45%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대표를 말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에 이 같은 답변을 남겼다. 홍 시장은 이어 “한동훈의 잘못으로 역대급 참패를 했고 총선을 대권 놀이 전초전으로 한 사람”이라며 “더 이상 그런 질문은 사양한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신 나간 배알 없는 짓으로 보수우파가 망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홍 시장의 향후 대권 경쟁 상대로 한 전 위원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나는 한동훈을 애초부터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의 등장은 일과성 헤프닝으로 봤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기적은 두번 다시 없다”고 일축했다. 홍 시장은 “지금 지지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2022년 8월 대선후보 경선 때 나는 4%, 윤석열 후보는 40%였으나 두 달 반 뒤 내가 48%였고 윤 후보는 37%였다. 한국 정치판은 캠페인에 따라 순식간에 바뀐다”고 했다. 그는 “오늘 이 답변으로 한동훈에 대한 내 생각을 모두 정리한다”고 썼다. 홍 시장은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연일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조여은 기자



지난 19일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 마을에서 열린 주민대피 훈련과 교육에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설명하고 있다.

“조력자 미리 지정” 경북형 산사태 대피 시스템 가동

경북도가 '경북형 산사태 대응 주민대피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12시간 사전대피 예보제를 운영하는 사전예측단계, 마을 순찰대와 마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조기대피 단계, 즉시 대피와 긴급구호를 하는 본격대피 단계로 이뤄져 있다. 도는 이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19일 문경시 산북면 가좌리 마을에서 주민대피 훈련과 교육을 했다. 훈련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산북면 이장협의회, 시군 재난부서 관계

공무원,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산사태를 대비해 12시간 사전대피 예보 제 발령에 따라 조기 대비를 하고, 마을대피소로의 대피훈련과 주민대피 행동요령 교육으로 진행됐다.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사전에 파악해 대피 조력자를 지정하고, 비상시 인근 부락 마을 주민 대피를 돕기 위한 이동 차량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실전 상황을 대비했다.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과거 침수·산사태 발

생지역 등 위험 요소가 있었던 마을로 이 곳을 우선 선전해야 할 훈련을 했다. 도는 이 달 말까지 예천군 감천면 수한리,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봉화 봉성면 우곡리를 대상으로 훈련을 계속한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 훈련으로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을 확산·적용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어떠한 재난 속에서도 도민을 지키고 보호하도록 재난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며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육청, 5년간 전국적으로 IB 교육 선도

IB 교육전문가 양성 박차

대구교육청은 지난 19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 관내 IBEC 대학 2곳과 IB 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대구교육청의 지역 내 공교육 발전을 위한 우수한 전문성을 갖춘 IB 교육자 양성 활성화 정책에 대구시가 공감, 관내 IBEC 교육기관인 경북대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가 마음을 모은 결과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지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자축, 시·교육청-대학이 공동으로 연계, 초·중·고교육의 혁신을 지원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벌 인재들 키우는데는 소명과 비전을 담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IB 교육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IB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IB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동 협력 사항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2024~2026년까지 3년간 대학 2곳에 총 30억 원, 대구교육청은 IB 교육전문가 연수와 IB 학급 실습 과정 등을 중심으로 총 15억 원을 지원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중·고 IBEC 인증기관을 모두 보유한 대구는 두 IBEC 기관인 경북대와 대구 교대 IB 센터 운영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2019년 대구가 선도적으로 꽃피운 IB 프로그램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초·중·고교육의 변화와 성장이 고등교육까지 확장,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인재들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조영숙, '경북 콩' 세계인 먹거리 만든다...

농기원 심포지엄 수출 증대 모색

경북농업기술원은 19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식품 경영체, 관련 학계 및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장류 세계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경북 발효식품 장류, 세계인의 먹거리'라는 주제로 장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글로벌 헬시 K-푸드 도시'로 약을 목표로 발효과학 인프라 구축, 지역 원료 계약재배, 대량생산 시스템을 위한 생산기공 시설 개선, 장류 발효 체험관광 사업을 한다. 콩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이고, 음식의 대표적인 조미료로 발효식품인 장(醬) 맛을 결정짓는 콩의 주요산지는 경북이다. 김성용 기자

경북은 콩 발효 산업 중심적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콩 소비 촉진을 위해 새달 30일을 콩 발효식품 먹는 날로 하기 위해 '한국장 데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콩 발효식품은 지역의 향토음식과 연계해 발전해 왔고, 장류를 세계인의 먹거리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와 콩을 함께 수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장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K-푸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벨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 4·환장·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단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남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교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아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주시 황성동, 용황지구 대대적인 환경정비

황성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는 지난 17일 용황지구 일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했다. 환경정비는 황성동 직원 및 하나님의 교회 소

속 50여 명이 참여, 용황임시주차장에 집결해 안전교육을 받은 후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용황 지구 인근 인도변을 중심으로 담배꽂초, 병, 캔 등 불법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구슬땀

을 흘렸다. 양현두 황성동장은 "황성동의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슬땀을 흘리며 청소하는 모습이 모든 황성동 주민들에게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깨우칠 수 있는 하나의 결실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주, 황룡사 9층 목탑 증강현실 콘텐츠 개발

문화유산 가치 회복 국민 체험기회 확대 더욱 앞장



경주시가 황룡사 9층 목탑 디지털 복원에 맞춰 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경주 황룡사지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을 배경으로 한 증강현실(AR) 어플리케이션 사전 시연회가 성공리에 종료됐다. 시연회는 공식 서비스 오픈 전 체험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경주시 SNS 기자단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황룡사역사문화관에서 사전 소개, 성과발표, 어플리케이션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디지털 복원을 마친 황룡사 중문과 남회랑에 이어 곧 완료될 황룡사 9층 목탑 디지털 복원에 따라 문화유산의 이해를 돕고 폭넓은 체험 기회를 제공, 기획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황룡사 9층 목탑 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을 추진한다. 콘텐츠 개발이 완료되면 방문객 누구나 경주 황룡사지에서 디지털 패드를 이용해 1:1 실물크기로 현장에서 사실감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 증강현실(AR) 체험 중 황룡사 9층 목탑의 5층, 9층 내부 창문으로 이동하면 신라시대 왕경 4계절과 주-야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360도 영상의 인터랙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탑 내부는 유물복원 권위, 정보 소개, 위치 이동 안내 등 음성 서비스와 설명을 입체적으로 구현한다. 목탑 외부는 황룡사 창건설화, 건립과정을 비롯해 목탑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외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준다. 시는 이달 안으로 황룡사 9층 목탑 증강현실(AR)의 현장 테스트와 매뉴얼 개발을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사로 인해 잠정 중단된 중문과 남회랑 증강현실(AR) 서비스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9층 목탑과 함께 내년도 상반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증강 현실 콘텐츠 개발은 고대 건축유적의 실물복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가치 회복과 국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벚꽃 놓쳤다면... 경주불국공원으로

겹벚꽃 성지 '경주 불국공원' 상춘객들로 '복적' 인기 최고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겹벚꽃 명소로 알려진 경주 불국공원에도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불국사 일대는 겹벚꽃 300여 그루가 밀집, 개화시기인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곳은 '인생샷' 성지다. 경주시는 그간 겹벚꽃 개화기에는 경관 조명으로 이곳을 화려하게 꾸며 온 것도 이곳이 겹벚꽃 성지가 되는데 한몫했다.

이곳을 방문하려면 내비게이션에 불국사공영 주차장 또는 경주시전현동 85-9를 검색하면 된다. 불국공원은 불국사 입구에 위치해 있어 별도의 입장료는 없지만 주차요금은 내야 한다. 주차요금은 시간 구분 없이 1회당 소형차량은 단돈 1000원이다. "이렇게 받아서 남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싸다. 이것마저 내기 싫은 분들은 그냥 집에 계셔라. 간단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 드리자면 소형 차량은 16인승 이하, 2.5톤 미만 화물차를 의미한다. 이것보다 더 큰 차 끌고 오실 분들은 2000원을 내면 된다. 매우 합리적인 요금 책정 방식이다.

단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평일에 오길 당부한다. 정 그래도 주말에 이곳을 찾았다면 불국사 상가 건너 가게 앞을 한두 번 훑으면 주차 공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주차 공간을 선택 내준 가게 앞에 들러 커피가 됐건, 식사가 됐건, 기념품이 됐건, 지갑을 여는 여유도 보여주시길.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주시가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교통지도에 나선다고 하니, 공무원들의 지시에 토 달지 마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도 간곡히 당부한다.

경주시, 생산~소비까지 먹거리 선순환 전략 완료

푸드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통합관리체계 구축 16개 사업

경주시가 먹거리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락우 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생산자 단체 대표 등 46명이 참석했다. 푸드플랜(FOOD PLAN)이란 지역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먹거리 종합관리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교육·홍보를 통한 지역화 △지속 가능한 다주제 연계 △공동으로 이끄는 내발적 자립 등 3가지 전략과제, 16개 세부사업을 도출했다. 시는 용역결과를 반영해 농가조직화, 포장재 통일 등의 로컬푸드 직매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재배 지원 등 로컬푸드 육성에 집중한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도량계량과 친환경 경자재를 지원함은 물론 농약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먹거리 확대에도 앞장선다.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보완해 5월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시 복지정책... 주민 삶 만족도 향상

야척마을 도시가스 보급 전·화천2·3리 하수도보급

경주 선동동 야척마을에 도시가스, 건천 화천2·3리에 공공 하수도가 보급된다.

야척마을에 도시가스 보급

경주시는 올 연말까지 선동동 야척마을 81세대를 대상으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배관 매설, 계량기 및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총 10억원의 사업비 중 주민자부담은 10%이다. LPG 소형저장탱크는 2톤 2기가 설치되고, 배관은 2.2km 규모로 매설된다.

건천 화천2·3리 공공 하수도 보급

경주시가 경주역 인근 건천 화천2·3리 일원에 공공 하수도를 보급한다. 시는 총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단계로 오수관로 680m와 오수펌프장 5개소를 우선 신설한다. 2단계로 165가구의 생활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연결한다. 이 지역은 2018년 6월 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완공에도 불구하고, 화천2·3리 주민들은 공공하수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아 악취와 정화조 청소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화천2·3리 일대에는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역 내 하수관로가 미설치된 구역이 일부 있어 하수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건천2산단까지 하수처리구역확대를 확대하고 공공 하수도를 설치해 지난해 5월 화천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을 개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광명동과 화천 1리 일원에 179가구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완료했다.

보다 나은 농어촌

농지연금

지가 있다면 금이 있습니다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쪽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ki** 한국농어촌공사 **fb** 농지연금·농지연금

"나부터 청령하GO! 우리 함께 청령하GO! 모두 청령하GO!"

ki 한국농어촌공사 **fb** 성주지사

KRRC 서울 청령호역 (연세대학교입구) 제 C-2021-0011802

‘청송사과’ 대한민국 넘어 세계 제패 꿈꾼다!



청송사과, '2024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 12년 연속 대상 수상 영예 산소카페 청송군도시브랜드 부문서 5년 연속 대상 수상



청송사과 대한민국이 넘어 세계 제패를 꿈꾼다. 청송사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과다.

자연과 사람의 상상에서 미래를 여는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이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7일(수)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송사과'가 사과브랜드 부문에서 12년 연속 대상 수상,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브랜드를 직접 구매하고 소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 객관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파악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19회째 시행되고 있다.

사과 브랜드 부문 경우 청송사과를 포함한 8개 지자체의 사과가 후보에 올랐으나 소비자 조사 결과 '청송사과'가 최초 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리더십, 품질, 충성도 등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선택을 받아 대상을 차지했다.

청송사과는 이로써 사과 부문 1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과로 알려진 '청송사과'는 꾸준한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으로 매년 우수한 품질의 청송사과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청송군은 고밀식·다축형 미래형 과원 묘목비 지원, 과수 미세살수장치 지원, 저품위 청송사과 격리 지원과 딱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무적엽 청송사과 시범 생산 및 유통으로 청송사과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황금사과 연구단지를 조성, 황금사과 표준제배 매뉴얼 제작 및 데이터 수집,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기상·병해충 통합 관제실 구축,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종묘 연구실·실증시험 포장 운영으로 청송사과 미래 100년을 위한 연구와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2017년 개발된 청송황금사과 '황금진'은 맑은 황금색을 띠는 14브릭스(Brix) 내외의 당도와 부사와는 또 다른 특유의 상큼한 맛으로 갈수록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청송사과는 높이 250m 이상의 표고, 연평균 일교차 13.4℃,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강우량, 풍부한 일조량, 깨끗한 자연환경 등 사과 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육성·재배되고 있다.

청송사과는 청송군 전역에서 재배, 사과 재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청송 농업 생산의 약 30%에 이른다. 청송사과는 1924년 독립운동가이며 농촌운동가인 박치환(朴致煥) 장로가 청송군

현서면 덕계리에 사과 묘목을 보급함으로써 군 전체에 전파되었다. 청송사과는 1994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2007년 농림부 청송사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2008년 12월 지식경제부 청송사과 특구 지정 등 지역 이미지에 걸맞은 브랜드 개발을 지속해 왔다.

청송사과의 품종은 후지가 80% 이상으로 주종을 이룬다.

재배 시 농약이나 화학비료 대신 산야초, 농산 부산물 등 유기질 비료를 시비하고 머리빨기위벌 방사로 재배하여 기형과가 적으며 반사 필름을 사용하여 전체가 고루 붉게 익는 사과를 생산한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키 낮은 사과원저수 고밀식 과원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시행 중이다.

청송사과와 함께 브랜드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군이 도시 브랜드 부문에서 5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도시 브랜드는 산소카페 청송군을 포함한 8개 지자체가 후보에 올랐으나, 소비자들은 산소카페 청송군을 선택했다.

청송군 도시 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은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닌 청송군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

'산소카페 청송군'은 깨끗하고 울창한 산림에서 방출되는 양질의 산소와 피톤치드가 풍부한 공간이자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자연주의 콘셉트의 도시 브랜드이다.

청송군은 깨끗하고 맑아서 치유와 힘을 떠올리게 하는 '산소카페 청송군' 도시 브랜드를 활용해 청송군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대한민국 최고 브랜드 대상에서 '청송사과' 12년 연속, '산소카페 청송군' 5년 연속 대상 수상으로 청송군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윤 군수는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생산되는 청송사과를 12년 연속 대표 브랜드로 선택해 주신 소비자에게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품질 향상과 철저한 품질 관리로 청송사과를 사랑해주시는 소비자의 신뢰에 보답하고 산소카페 청송군의 이념을 지키는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윤병문 기자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김재욱, 독일 방문 관광산업 육성 유럽 시장 교두보 마련



김재욱 칠곡군수를 비롯해 권선호 칠곡군의원,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 박현동 아바스 등의 칠곡군 방문단은 지난 17일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 “지역 산재한 국내를 대표하는 가톨릭 문화 유산 유기적 결합 시너지효과 발휘 통한 문화관광 산업육성 유럽 시장 개척 등 해외 시장 다변화 정책 지역 생존 위한 절대 필요한 전략적인 과제...

르자흐수도원과 상트오틀리엔수도원 방문을 통해 칠곡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톨릭 관광 활성화와 하노버 해외 무역 사절단 운영을 통한 관내 기업의 독일 시장 진출을 돕고자 마련했다.

칠곡군 방문단은 지난 18일 뮌스터슈바르자흐수도원을 찾아 수도원장과 담담자를 만나 가톨릭 문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운영 비결을 확인한다.

19~20일에는 상트오틀리엔으로 이동해 수도원이 운영 중인 전시관을 찾아 칠곡군과 왜관수도원이 추진 중인 가톨릭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정보와 독일어에 있는 국내 문화재의 왜관수도원 교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한다.

21일에는 인천에서 20일 출국한 칠곡군 소재 중소기업 8개 사로 구성된 해외 무역사절단과 합류하고 독일 경제 전문가인 김인숙 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상담회 준비에 나선다.

22일은 인터시티 호텔 하노버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관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신뢰도 향상과 외교적인 지원에 나선다.

23~24일은 관내 기업인과 함께 하노버 산업 및 섬유 박람회에 참석해 최신 산업 추세를 파악하고 박람회 부스를 운영하는 관내 기업을 찾아 행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25일은 코트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을 찾아 독일 시장 최신 동향과 관내 기업의 독일 진출을 위한 노하우를 모색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권선호 칠곡군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가톨릭 관광산업 육성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군 의회 차원의 세부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미경 기자

칠곡군이 관광사업에 총매진한다.

군은 가톨릭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8박 10일의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한다.

김재욱 칠곡군수와 권선호 칠곡군의원,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 박현동 아바스 등의 칠곡군 방문단은 지난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출국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에 산재한 국내를 대표하는 가톨릭 문화 유산들의 유기적 결합과 시너지 효과 발휘를 통한 문화관광 산업 육성과 유럽 시장 개척 등을 통한 해외 시장 다변화 정책은 지역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기업인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더 큰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왜관수도원과 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소속 형제 수도회인 뮌스터슈바



지난 18일 가톨릭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위해 활성화를 독일 뮌스터슈바르자흐수도원을 찾은 김재욱 칠곡군수가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뮌스터슈바르자흐수도원은 왜관수도원과 성 베네딕도회 오달리아 연합회 소속 형제 수도회로 칠곡군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했다.



지난 18일 가톨릭 관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독일 뮌스터슈바르자흐수도원을 찾은 칠곡군 방문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칠곡군은 방문단은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권선호 군의원,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장 박현동 아바스, 박경주 문화관광과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8일 왜관성당을 비롯해 국내에서 20년 동안 활동한 베르켈(90) 신부가 톨릭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독일 뮌스터슈바르자흐수도원을 찾은 김재욱 칠곡군수에게 한국 관련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다.



2024 대구광역시

女人天下 챔피언십

특별 행운상

- 임플란트 진료권
- 한의원 상품권
- 성형외과 시술권
- 호반오리 무료시식권
- 펜션 숙박할인권
- 골프장 그린피할인권

메달리스트

백화점 상품권 50만원
성형외과 진료권 20만원

신페리오

- 우승 150만원 (백화점상품권)
- 준우승 100만원 (백화점상품권)
- 3위 70만원 (백화점상품권)
- 롱기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 니어리스트 30만원 (백화점상품권)

만찬장소
경주신라컨트리클럽 2층 대식당

5월 20일 (월) 2부 순차플레이

- 팀 : 20팀 선착순 마감(입금자순)
- 참가비 : 27만원
- 장 소 :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주최 (주)대구광역시보 주관 경주보성마트

3월 21일 ~ 4월 30일(입금자우선)

※입금 후 환불 불가 (선수교체 가능)

- 참가자격 : 아마추어
- 참가비 : 27만원 (그린피, 키트, 저녁만찬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김영숙) 대구은행 508-11-147821-4

■ 참가문의
· 대구광역시보 사업국 담당 010-4473-4473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